



제목	Contested Conversions to Islam: Narratives of Religious Change in the Early Modern Ottoman Empir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Stan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1. 5. 13.
저자	Tijana Krstić
출판도시	Stanford
페이지수	264
ISBN 또는 ISSN	978-0804773171

내용 요약

이 책은 오스만제국의 패권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슬람으로의 개종이 정점에 이르렀던 15세기~17세기에 나타난 이슬람 개종 현상을 오스만제국의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와 조직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조사함으로써, 공동체 단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또한 제국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에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에 대한 논쟁을 소개한다. 저자는 ‘교과화 과정(confessionalization)’이라는 발전적 장치를 제안 하면서, 기독교 세계뿐만 아니라 무슬림 세계도 교과화 과정의 시기를 경험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14세기 오스만 이슬람의 발전과정과 이슬람교가 오스만제국 정책의 주된 요소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2장은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다루고, 비잔틴과 발칸의 개종자들이 오스만제국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3장은 16세기 전반부에 무슬림들이 메시아의 정체성과 개종과 묵시문학에 대한 논의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고찰한다. 4장은 오스만 개종자들의 자기체험담 다섯 편을 분석한다. 5장과 6장은 이슬람으로의 개종에 대한 정교회와 가톨릭과 개신교의 담론을 소개하고, 다양한 교파의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의 순교록에 대해 논의한다.